

【논 문】

한국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노형남

(고려대 교수)

변재학

(고려대, 국제경영)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바야흐로 동남아의 대체지역으로 浮上하면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기회의 대륙인 중남미에로의 해외직접투자(FDI)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 및 실증분석을 위주로 한국 기업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유형을 비롯하여 한국과 중남미 각국간의 환율·인건비·물가 등이 중남미 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통계적 고찰을 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 중남미 투자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성과와 시련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21세기 중남미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의 향방을 제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문제의식

한국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의 배경은 임금상승과 제조비용의 증가가 원인이었으며 수산업의 경우에는 원양어선의 전초기지가 중남미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중남미 직접투자 대상국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주류를 이루며 광업, 수산업 분야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대 중남미 직접투자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사회·정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다. 한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空洞化가 초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공동화는 국내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생산의 감소로 국내경제성장률(GDP)의 둔화를 초래하고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한국 시장의 축소, 국내역수입 증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3) 연구의 動機 및 필요성

지난 20세기 말, 세계화 및 경제개방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수출입국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1980년까지 수출에 치중하던 한국 기업은 1990년대에 이르러 대내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해외직·간접투자를 시행하였다.

해외직접투자의 초기에는 저임금에 의존하던 경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한국의 주력산업부문에 서도 이루어진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물리적인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요소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풍부한 해외소비 시장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판매기지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의 국제화, 지역경제 이기주의의 확산, 그리고 기술개발경쟁의 심화와 기술보호주의의 급속한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국내 산업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4)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 기업이 국내의 임금인상, 환율변화, 노사분규 문제 때문에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시키고 있는 현상을 사례 분석하되 경험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해외직접투자 경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직접투자의 건수와 액수가 많은 나라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사하되, 기존에 발표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기초문헌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연보 및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분석하여 중남미 직접투자의 현황 및 추이를 규명한다. 그리고 최근자료를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8.0을 사용함으로써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2. 이론적 배경

1)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별로 본 유형

(1) 해외생산 거점형 투자

현지국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투자유형이다. 이는 국제 분업형 투자, 또는 생산효율지향형 투자라고도 하는데 주로 일본, 한국, 미국 기업의 동남아나 카리브해 연안국에 대한 투자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자연히 섬유, 의류, 봉제, 신발, 가정용 전자제품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투자규모도 중소기업형의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현지시장 접근형 투자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의 투자이다. 주로 노동집약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생산 거점형 투자와 달리 이는 기계, 화학, 자동차 등 기술집약 산업에서 이루어진다.

(3) 무역장벽 회피형 투자

기업이 수출하는 시장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제3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는 미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카리브해 연안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투자, 그리고 EU역내 보호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남부유럽이나舊동구권 등에 대한 투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의류나 봉제 같은 노동집약 산업은 물론이려니와 자동차 같은 기술집약 산업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투자유형이다.

이러한 무역장벽 회피형 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특혜관세(GSP)의 졸업국이 됨에 따라 아직 GSP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현지의 값싼 노동력도 이용하고 GSP 혜택도 누리기 위해서, 둘째, 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지역경제 결합이 가져오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여 지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EU나 북미지역에 생산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북미지역의 경우 생산요소비용은 저렴하면서, 세계최대의 미국시장 접근이 용이한 멕시코의 마길라도라 지역, 유럽지역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여 역시 EU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헝가리, 체코 같은 구 동구권과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남부유럽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엄격한 국제비교우위논리의 틀 속에서 볼 때 무역장벽회피형 투자는 피투자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업의 투자행위를 왜곡하는 逆시장기능적 투자이다. 환언하면 비교우위 원리에 역행하는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지생산을 통해 생산효율을 증가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장에 접근 또는 기존 수출시장을 잃지 않게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이다. 현지에서의 불리한 생산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자회사는 본국에서 값싸게 생산한 중간재를 수입

하여 현지에서는 단순히 조립만 하여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4) 선진기술 습득형 투자

선진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진보된 기술이나 경영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투자이다. 일본, 유럽, 신흥공업국의 미국 실리콘 밸리 등에 대한 투자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날로 기술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대단히 뛰어난 방법으로 인식되어 1980년대 말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안세영 1997: 42-45).

<표 1> 동기별로 본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해외생산거점형	현지시장접근형	무역장벽회피형	선진기술습득형
투자분야	노동집약	기술집약	기술·노동집약	기술집약
투자규모	중소기업형	대기업형	-	대기업형
지분참여	소수지분	다수지분	다수지분	-
생산품의 판매처	투자국, 3국	현지국	3국	현지국·투자국

자료: 안세영(1997: 43)

2)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다음의 <표 2>은 최근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건수와 금액 모두 지리적·문화적 거리가 가깝고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에로 해외직접투자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남미 지역은 금액이나 건수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그 값이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문화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하지만 NAFTA의 탄생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FTAA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지역이다.

<표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잔존투자액, 연도·지역별)
(단위: 천\$, 괄호 안은 건수)

구분	동남아	북미	중남미	유럽	기타	합계
1993	486,567 (545)	390,296 (58)	44,407 (31)	189,632 (33)	-	1,262,020 (683)
1994	1,079,923 (1,213)	566,604 (135)	49,150 (33)	427,855 (56)	-	2,298,185 (1,475)
1995	1,645,759 (1,013)	545,872 (133)	153,763 (30)	613,815 (79)	-	3,066,741 (1,291)
1996	1,599,229 (1,035)	1,576,644 (189)	243,125 (37)	654,257 (77)	-	4,176,309 (1,392)
1997	1,481,054 (846)	492,083 (218)	257,391 (29)	429,062 (80)	-	2,917,848 (1,238)
합계	7,968,778 (5,872)	5,681,862 (1,368)	948,231 5% (346) 4%	2,752,806 (529)	-	18,936,969 (8,531)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주: 1993년 수치는 1993년까지의 누계.

3)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

상술한 바와 같이 해외투자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대거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국내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산업 공동화가 특히 우려되는 경쟁우위산업이나 대형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현황

1)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배경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경제규모와 결속도·관련제도 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주지역에서의 범지역적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이래 FTAA 창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독려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주지역 전체 무역규모가 작고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며 역내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환·창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하지만 앞으로 가시화 될 이러한 지역 경제블록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함께 선견지명을 가지고 해당지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할 때 가능한 전략은 브라질처럼 국내시장이 거대한 국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남미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를 개발하는 것이 上策이다.

다음의 <표 3>은 한국의 최근 對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나타낸 것이다.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옴을 알 수 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지역으로의 직접투자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파나마 지역은 건수는 많지만 시제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소규모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한국의 對 중남미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통계 (잔존기준)

(단위: 천\$, 괄호 안은 건수)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멕시코	11,506 (5)	16,505 (12)	25,845 (16)	65,673 (20)	93,281 (26)	136,020 (33)
버진군도	300 (1)	1,830 (2)	4,830 (4)	7,430 (5)	48,035 (7)	84,535 (10)
브라질	2,239 (4)	2,239 (4)	678 (6)	19,836 (10)	69,973 (15)	117,005 (17)
아르헨티나	21,560 (23)	36,271 (27)	40,299 (30)	46,024 (30)	53,631 (32)	56,556 (33)
파나마	76,113 (50)	73,072 (48)	64,887 (48)	66,940 (43)	73,540 (44)	76,790 (43)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주: ① 투자액 최고 : 멕시코, 건수 최고 : 파나마

② 1992년 수치는 1992년까지의 누계.

다음의 <표 4>는 업종별로 본 해외직접투자 현황이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수산업 부문에서는 중남미가 전체 수산업 분야의 51.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원양어업 전초기지가 중남미에 있는 원인도 있고 세금이 월등히 싼 중남미 국가 소속으로 선박을 등록시키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한국의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 현황 (잔존기준)

(단위: 천\$, 괄호 안은 건수)

구분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무역업	기타	합계
아시아	388,221 (30)	35,050 (8)	24,019 (73)	7,771,440 (5,287)	367,651 (150)	123,022 (87)	741,117 (496)	-	11,063,930 (6,752)
유럽	95,140 (3)	1,500 (2)	5,774 (8)	2,141,682 (217)	14,992 (8)	100,684 (12)	1,073,873 (188)	-	3,989,778 (529)
북미	221,829 (11)	500 (1)	23,031 (14)	2,225,341 (409)	137,120 (35)	22,911 (26)	2,562,127 (387)	-	6,287,881 (1,261)
중남미	208,192 (9)	27,200 (3)	61,039 (57) 51%	685,512 (188) 5%	10,118 (9)	17,895 (12)	106,862 (46)	-	1,414,385 (347)
기타	-	-	-	-	-	-	-	-	-
합계	1,509,193 (88)	131,746 (22)	118,867 (165)	13,136,050 (6,238)	583,411 (234)	269,386 (140)	4,685,474 (1,186)	-	24,266,521 (9,286)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제조업은 아시아, 북미, 유럽과 중남미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원자재 공급원의 확보와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한국과 지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 문호를 대폭 개방함으로써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임금상승, 제조비용 증가 등으로 입지요인을 찾아 진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북미와 유럽은 기술상의 우위확보 및 수입규제 회피를 통한 현지시장 확보와 첨단기술 확보 측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 지역 중에서 멕시코는 북미시장에 대한 우회수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입규제를 회피하려는 요인과 함께 풍부한 멕시코의 잠재시장에 대한 매력 때문이고, 이외의 중남미 지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유치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의지와 내수시장 개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의 <표 5>는 對 중남미 순 외국인 직접투자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95년~1997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지만 1998년 상황은 세계 전체적으로 있었던 금융위기로 인해 순간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99년에 들어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지는 나라들이 많아서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對 중남미 순 외국인 직접투자 (투자액 기준)

(단위: 백만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중남미 전체	26,958	37,584	57,131	53,195
아르헨티나	4,628	4,855	6,647	5,800
브라질	3,475	9,123	18,601	22,500
콜롬비아	1,943	3,208	5,192	2,625
에콰도르	470	447	577	750
과테말라	75	77	85	600
멕시코	9,526	9,189	12,748	9,300
파라과이	156	246	221	245
페루	2,048	3,242	2,030	2,070
우루과이	157	137	160	155
베네수엘라	686	1,676	4,611	3,145

자료: 국가정보원(1999)

2)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국가별 분석

(1) 멕시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광범위한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온 결과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에는 1993년 대비 63% 증가한 8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고 1994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1995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전년보다 18% 감소한 65억 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꾸준한 경제회복으로 1996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은 총 602억 달러에 달한다(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1999).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NAFTA 발효 이후 미국, 캐나다와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1억에 가까운 인구와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가치가 대단히 높다(UN 1998).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멕시코는 매우 유용한 미국시장의 우회진출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적으로도 북부 국경지역으로 투자지를 결정하는 것이 물류 비용이나 시장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음의 <표 6>은 한국의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한국의 對 멕시코 제조업별 직접투자 현황 (잔존기준)

(단위: 천\$, 괄호 안은 건수)

구분	1차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석유, 화학	섬유, 의복	신발, 가죽	음 식료품	조립 금속	계
1994	319 (1)	0 (0)	0 (0)	1,040 (2)	1,163 (2)	525 (2)	0 (0)	17,250 (2)	20,297 (9)
1995	319 (1)	0 (0)	974 (2)	3,415 (3)	1,163 (2)	625 (3)	0 (0)	50,927 (4)	57,423 (15)
1996	819 (2)	0 (0)	1,104 (3)	3,415 (3)	3,313 (2)	625 (3)	1,503 (2)	72,727 (6)	83,506 (21)
1997	1,069 (2)	0 (0)	1,513 (3)	3,415 (3)	3,313 (4)	992 (4)	2,169 (2)	74,277 (7)	86,748 (25)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1999)¹⁾

<표 6>에서 보듯이 對 멕시코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투자 양식과는 달리 —브라질은 석유화학, 섬유분야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며 1차 금속과 조립금속위주인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광업과 수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멕시코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공장입지가 멕시코 북부의 마킬라도라지역(수출자유지역)에서 이루어

1) 멕시코는 제조업의 FDI가 많다. 멕시코 전체투자액의 63%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석유·화학, 섬유·의복, 조립금속이 상당수·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져 미국으로의 수출에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는 산업구조가 아직은 단순제조 경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본집약 산업의 성장속도가 빠른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까지의 경공업 위주의 투자보다는 기술 및 자본 집약 분야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순한 완제품 업체나 부품업체만 진출할 것이 아니라 부품·완성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것도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브라질

브라질은 거대한 국토, 풍부한 부존자원, 인구 1억 5천만의 잠재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의 최대 대국이며 비교적 풍부한 노동력, 각종 에너지 자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등으로 이 나라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의 진출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1970년대의 민족운동, 1980년대의 채무위기 등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는 저조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한국의 對 브라질 제조업별 직접투자 현황 (잔존투자액 기준)
(단위: 천\$, 괄호 안은 건수)

구분	1차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석유, 화학	섬유, 의복	신발, 가죽	음 식료품	조립 금속	계
199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3 (1)	173 (1)
1995	0 (0)	0 (0)	91 (2)	0 (0)	0 (0)	0 (0)	0 (0)	17,173 (2)	17,264 (5)
1996	20,160 (1)	0 (0)	91 (2)	0 (0)	0 (0)	0 (0)	0 (0)	46,859 (6)	67,110 (9)
1997	26,920 (1)	0 (0)	91 (2)	0 (0)	0 (0)	0 (0)	0 (0)	83,973 (6)	110,993 (9)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1999)²⁾

- 2) ① 1차 금속과 조립금속 분야의 투자가 활발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95%를 차지한다.
② 1994년 수치는 1994년까지의 누계이다.

위의 <표 7>은 한국의 對 브라질 직접투자를 나타낸 것이다. 1997년 잔존투자액 기준으로 총 117,005천 US\$; (17건)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서 95%에 달하는 금액을 1차 금속과 조립 금속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브라질의 투자경향은 북미시장을 겨냥한 멕시코와는 달리 남미 지역시장의 잠재력을 겨냥한 투자로서 지속적이고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브라질은 1995년에 들어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외자유치로 인하여 한국의 삼성, LG전자, 대우전자, 아시아자동차, 포항제철 등 대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할 실정이고 대우도 현지 기업과 합작형식으로 투자를 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의 경우 브라질 정부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적으로 올리면서 한국 기업의 완성차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 공장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남미의 최대 공업국인 브라질이 선도적으로 MERCOSUR를 이끌어가고 칠레와 볼리비아의 가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브라질이 갖는 경제적 위상 및 잠재시장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는 날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3) 아르헨티나

중남미의 많은 국가 중에서도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

<표 8> 한국의 對 아르헨티나 직접투자 현황 (업종별, 잔존기준)
(단위: 천\$, 괄호 안은 건수)

구분	건설업	광업	기타	무역업	수산업	운수 보관업	임업	제조업	계
1994	275 (1)	13,861 (2)	0 (0)	1,500 (1)	24,518 (24)	0 (0)	0 (0)	145 (2)	40,299 (30)
1995	908 (1)	16,264 (2)	0 (0)	1,500 (1)	27,207 (24)	0 (0)	0 (0)	145 (2)	46,024 (30)
1996	1,408 (1)	22,949 (3)	0 (0)	3,600 (2)	25,529 (24)	0 (0)	0 (0)	145 (2)	53,631 (32)
1997	1,408 (1)	26,215 (3)	0 (0)	3,600 (2)	25,188 (25)	0 (0)	0 (0)	145 (2)	56,556 (33)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1999)3)

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회복기에 들어가 있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 현재까지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겨냥한 자원지향 형태의 직접투자를 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자, 전기, 섬유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표 8〉 참조)

아르헨티나는 통신, 항공, 유전, 수도, 전기, 철도 등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도 유전개발 및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파나마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로서 일찍이 파나마운하의 혜택으로 인해 무역업의 발달을 이루어 왔다. 對 중남미 직접 투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해외생산거점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투자 경향은 다음의 〈표 9〉에 나타나듯이 무역업과 수산업 그리고 제조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 9〉 한국의 對 파나마 직접투자 현황 (잔존기준)
(단위: 천\$, 괄호 안은 건수)

구분	건설업	광업	기타	무역업	수산업	운수 보관업	임업	제조업	계
1994	0 (0)	0 (0)	3 (1)	10,250 (5)	22,696 (20)	7,320 (7)	0 (0)	24,618 (15)	64,887 (48)
1995	0 (0)	0 (0)	1,003 (2)	16,250 (5)	13,089 (16)	7,320 (7)	0 (0)	29,278 (13)	66,940 (43)
1996	0 (0)	0 (0)	1,553 (3)	16,250 (5)	13,089 (16)	7,707 (7)	0 (0)	35,578 (13)	73,540 (44)
1997	0 (0)	0 (0)	1,553 (3)	16,250 (5)	12,839 (15)	7,707 (7)	0 (0)	39,078 (13)	76,790 (43)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1999)⁴⁾

- 3) ① 광업·수산업으로의 FDI 성행하여 전체투자액의 91%가 수산업과 광업으로 집중된다.
 ②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1차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광산업 자원분야로 해외투자의 유치가 활발하다.
- 4) 무역업, 수산업 그리고 제조업의 투자가 전체투자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3)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현황

(1) 대기업

한국의 대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규모는 다음의 <표 10>에 나타나 있다. 중남미 지역으로의 투자건수와 금액 면에서 3~7% 정도의 아주 미미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에는 한국의 금융환란으로 인해 직접투자의 금액과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여하튼 중남미 직접투자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날로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적·지리적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 직접투자는 미약했지만 날로 중남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중남미의 무한한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그 잠재적 가치는 더욱더 평가절상해야 한다. 그 경제적 중요성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앞으로의 아메리카 경제 불럭화를 대비한 준비가 핵심역량과 해외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대기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표 10> 한국 대기업의 해외지역별 투자규모 (총 투자규모)

(단위: 백만 \$)

지역	1995		1996		1997		1998.1-7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동남아	171	1,162	133	1,108	121	1,203	27	458	1,139	5,986
북미	30	451	37	1,382	28	561	9	357	520	5,455
중남미	9	81	19	195	15	155	2	25	149	654
	3.5%	3.4%	7.8%	5.8%	7.1%	6.1%	3.8%	1.9%	6.4%	4%
유럽	40	605	37	590	34	393	10	370	327	2,945
기타	-	-	-	-	-	-	-	-	-	-
전체	260	2,397	243	3,362	211	2,545	52	1,281	2,314	16,510

자료: 대한민국 국회(1998)⁵⁾

파나마의 지리적인 특성(파나마운하)으로 무역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5) %는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 (중남미/세계전체)

(2)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금액)가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도에 14%, 1991년도에 12%, 그리고 1992년도 이후에는 다음의 <표 11>에서 보듯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초기 중남미 직접투자가 섬유·의류 분야의 노동집약 산업에 집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남미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타 선진국의 직·간접투자자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 기업의 퇴거로 인하여 금액과 건수 면에서 날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중남미 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술개발과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1>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지역별 투자규모 (총 투자규모)

(단위: 백만 \$)

지역	1992		1993		1994		1995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동남아	280	179,602	453	262,633	989	397,204	744	410,965	2,882	1,508,568
북미	37	38,608	29	22,121	75	58,719	70	77,769	379	314,009
중남미	16	13,868	13	8,953	17	14,190	12	6,105	140	112,540
	4.5%	5.8%	1.9%	2.9%	1.5%	2.9%	1.4%	1.1%	3.9%	5.5%
유럽	15	2,515	10	7,723	24	15,380	31	32,055	100	64,082
기타	-	-	-	-	-	-	-	-	-	-
전체	353	238,427	514	305,714	1,119	490,036	871	534,993	3,595	2,054,429

자료: 대한민국 국회(1996)

4) 투자사례6)

(1) 대우전자(주)의 컬러TV 제조 해외직접투자(멕시코) ; 대기업의 투자사례

6)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1999

① 투자진출 동기

1988년 7월 대우전자는 對美 수출 컬러TV에서 23.3%의 Dumping 판정을 받음으로써 미국에 컬러TV 수출을 중단하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이때부터 TV수출부서내에 Project Team이 발족되어 멕시코 직접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② 투자 배경

Maquiladora Program(수출자유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타 멕시코 지역에 비하여 인건비가 60% 정도로 저렴하며 제반 비용(지가, 건축)에서 국경도시 가운데 가장 유리하다.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은 지역으로서 멕시코의 고질병인 높은 이직률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며 노동인력이 가장 안정된 지역이다.

③ 사업 현황

종업원은 한국인 13명과 현지인 784명으로 이루어 졌는데 조업초기에는 종업원의 노동의식 결여와 낙천적 성격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및 높은 결근률과 이직률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이 있었다. 하지만 꾸준한 교육과 갖가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1992년에는 15%의 이직률과 7%의 결근률을 보였지만 1995년에는 각각 5%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로 북미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④ 향후 사업전망

컬러TV의 경우 1996년 9월부터 연간 300만대 이상 대량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량 생산에 따르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신규 Model을 계속 개발하고 자재의 직구매, 현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주시장을 석권할 계획을 갖고 있다.

(2) (주)에이스의 안테나 유리 장식품 제조(도미니카); 중소기업의 투자사례

① 투자진출 동기

이 회사는 안테나, 통신기기, 유리 장식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투자진출 구상 시기인 1988년도의 국내의 상황은 생산활동 및 판매(수출 활동 포함)가 양호하였으며 원자재·부자재 조달 및 비용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노동력 확보와 인건비가 다소 부담이 되었다. 유리 장식품 제조는 전 공정이 수공예 작업으로서 지난 수년간 미국시장에서 꾸준한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 무역장벽 타개, 새로운 시장개척 및 기존시장 확대를 위하여 투자진출을 계획하게 되었다.

② 투자지역 선정

파나마는 한국과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노동력확보가 수월하고 임금수준도 국내의 30~50%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원자재·부자재의 현지조달이 가능하고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도 양호하다. 무엇보다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값싼 노동력 확보, 투자인센티브 양호, 수출시장과의 거리적 이점이 주된 동기이다.

③ 사업현황

현지 노동자의 수급은 원활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촌출신의 미숙련공으로 생산기술의 습득이 매우 늦고, 신제품이나 신규모델의 적응도가 낮은 탓으로 불량률이 높아 조업초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그러나 제품 수요의 신장세가 예측되고 저임금 및 관세감면 혜택으로 가격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꾸준한 교육투자로 불량률의 극소화를 유도하여 생산라인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④ 향후 사업전망

현재 미국 및 유럽의 경기가 활황이어서 기존 바이어의 시장확대로 제품의 시장점유가 향상되고 있으며 모델의 생명주기가 짧아져 새로운 모델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생산력 또한 안정되어 평균 이상의 매출신장이 예상된다.

4. 한국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 요인 실증분석

1)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배경

NAFTA와 MERCOSUR는 경제규모와 결속도, 관련제도 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주지역내의 범 지역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래 FTAA 창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 전체 무역규모가 작고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며 역내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환·창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경제블록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더불어 과감한 해당지역의 진출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은 브라질의 경우처럼 국내시장이 큰 국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남미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최근 對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옴을 알 수 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지역으로의 직접투자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원인으로는 중남미 지역의 저 평가 화폐가치로 인한 중남미 기업의 인수와 중남미 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 산업의 진출, 그리고 거대한 현지시장의 내수개척에 대한 의지와 중남미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캐나다에로의 수출을 향한 거점확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기업체의 전략적 의지와 지리적 영향력 그리고 被투자국의 정치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고 피투자국의 실질임금과 실질실회환율⁷⁾ 그리고 한국의 환율과 명목임금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2) 분석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 양상을 통계수치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의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투자국·피투자국 사이의 실질임금이라고 여겨 왔고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듯이 투자국·피투자국사이의 환율의 차 또한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은 한국의 사정을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론을 중남미 각국의 직접투자에 접목시켜 보려고 하며 이로 인해 21세기 한국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에 제언을 하려고 한다.

3) 분석의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중남미 정치·경제 리포트』(국가정보원 1999.4)와 한국수출입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액, 중남미 각국의 실질임금과 실질실회환율 지수⁸⁾를 발췌했으며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1991년~1997년 사이의 환율변화와 제조업 근로자의 명목임금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對 중남미 투자액, 피투자국의 실질임금·실질실회환율 자

7) 이 연구에서의 실질실회환율은 일반적인 환율의 개념이 아니라 통화가치로 사용한다.

8)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질실회환율 지수는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중남미 각국 통화의 실질환율의 평균지수로서 가중치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산정 되고 각국의 소비자물가 지수를 계산에 사용한 것이다.

료는 중남미 8개국(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의 1991년~1997년에 조사된 수치이다.

4) 분석의 내용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사이의 상관관계

<표 12>는 투자액과 나머지 네 개 독립변수 상관관계의 예상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의 열거를 생략하고 기존의 선행연구 논문에서 위와 같은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둔다.

① 투자액과 피투자국의 임금: 피투자국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투자국의 비용이 증가해 투자를 기피하게 한다.

② 투자액과 피투자국의 실효환율: 피투자국의 실효환율(통화가치)이 상승할수록 투자국의 환 부담이 가중되어 투자를 제3국으로 선회할 것이다.

③ 투자액과 투자국의 환율: 투자국 환율의 상승(통화가치의 하락)은 해외기업 인수와 직접투자시에 매입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투자를 회피하게 한다.

④ 투자액과 투자국의 임금: 투자국의 임금의 상승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에로의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게 만든다.

<표 12> 기존연구를 통한 상관관계 계수의 부호

투 자 액	피투자국의 임금	피투자국의 실효환율	한국의 환율	한국의 명목임금
예상부호	—	—	—	+

(2) 분석의 실행

다음의 <표 13>에서 투자액과 피투자국의 실질임금·실질실효환율 그리고 투자액과 한국의 對 달러 환율·명목임금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액과 피투자국의 실질임금·실효환율의 상관계수⁹⁾가 예상대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또한 피투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높을수록 직접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임금과 투자액 사이의 상관계수도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기존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환율과 투자액과의 상관관계수 부호가 양(+) 부호가 나온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 개별기업의 세계화 역량의 급속한 증가와 정적 자유화로 인해 국내 임금의 엄청난 상승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와 동시에 환율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환율과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가 음(-)으로 예상되었지만 환율보다는 개별기업의 세계화 의지와 임금상승의 영향력이 직접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표 3>의 한국 환율의 베타계수가 작다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표 13>에서의 투자액과 중남미 실질임금·실질실효환율의 상관관계계수 값이 한국의 환율·임금보다 작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중남미의 임금은 한국의 40~50% 수준이고 중남미의 극심한 환율 변화에 국내 기업이 민감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피투자국의 현지 상황보다는 국내 경제상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원인이 미국으로의 수출 거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과 화폐가치의 낮음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더 큰 미래의 시장을 위한 포석과 국내 제조업 생산배경의 악화로 인한 해외진출의 요인이 더욱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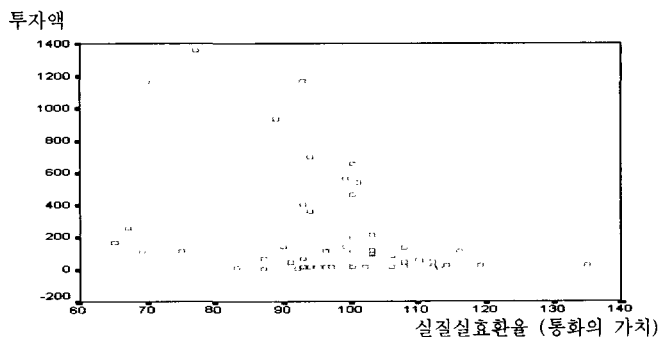
-
- 9) 상관관계는 두 변인간에 선형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상관관계 계수 값은 분산도상의 여러 점들이 일반적 유형의 기울기의 함수이며 점들을 에워싸고 있는 가상의 타원형의 너비인 것이다. 만일 기울기가 음이면 r (상관관계 계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또한 타원형의 너비가 좁다면 관계의 정도는 클 것이며 따라서 상관관계 계수도 큼을 의미한다.

<표 13> 투자액, 실질임금과 실질 실효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구 분		투자액	중남미 실질임금	중남미 실효환율	한국 환율	한국 임금
Pearson Correlation	투자액	1.000	-.091	-.159	.375	.433
	중남미 실질임금	-.091	1.000	-.212	.319	.431
	중남미 실효환율	-.284	-.432	1.000	-.275	-.278
	한국 환율	.375	.319	-.110	1.000	.721
	한국 임금	.433	.431	-.087	.721	1.000
Sig.(1-tailed)	투자액	-	.253	.017	.002	.000
	중남미 실질임금	.253	-	.000	.008	.000
	중남미 실효환율	.017	.000	-	.020	.019
	한국 환율	.002	.008	.020	-	.000
	한국 임금	.000	.000	.019	.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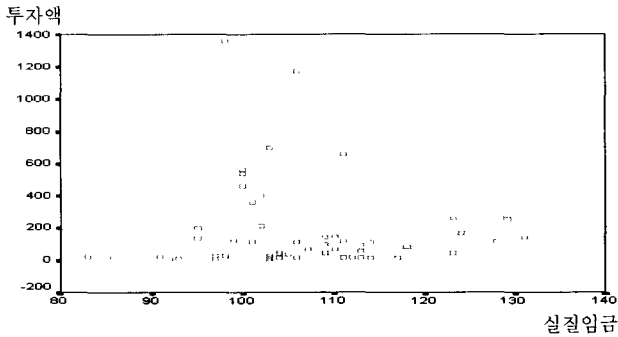
<표 13>에서 보듯이 상관관계의 계수 값이 그다지 크지 않음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중남미 1개국 것만이 아니라 8개국을 표본으로 하므로 투자규모와 현지국가 각각의 경제상황이 상이해서 <그림 1>로부터 <그림 4>까지에서 보듯이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1>에서부터 <그림 4>는 투자액과 피투자국의 실질실효환율, 실질임금과 투자액 및 한국의 환율, 명목임금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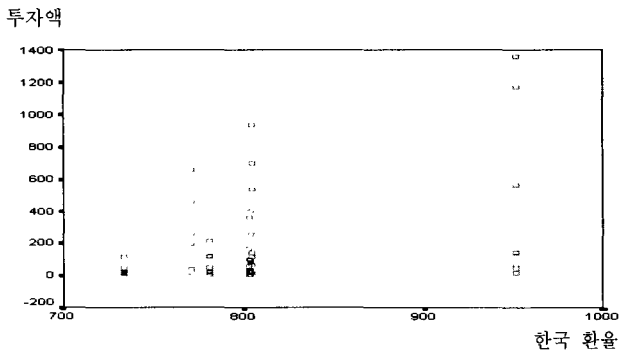
<그림 1> 투자액과 실질실효환율 사이의 산점도

주) 투자액 단위: 십만 \$; 실효환율: 9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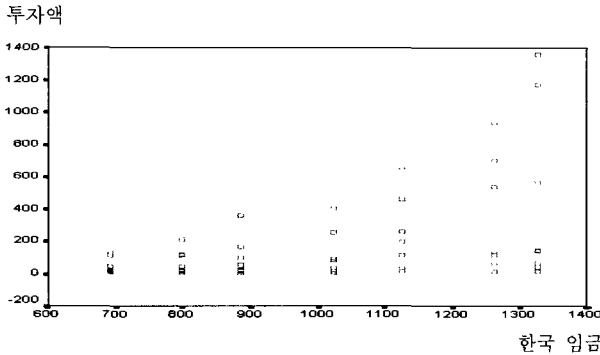
<그림 2> 투자액과 실질임금 사이의 산점도

주) 투자액 단위: 십만 \$; 실질임금: 90년=100



<그림 3> 투자액과 한국 환율 사이의 산점도

주) 투자액 단위: 십만 \$; 환율: 對 달러 환율



<그림 4> 투자액과 한국 명목임금 사이의 산점도

주) 투자액 단위: 십만 \$; 임금: 제조업 종사자의 명목임금(단위 1000원, 월)

<표 14> 투자액과 설명변수들 사이의 통계치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95% confidence interval for B	
	B	Std. Error	Beta			Lower Bound	Upper Bound
Constant	1369.634	729.384	-	1.878	.006	-94.664	2833.933
실질임금	-13.174	3.702	-.468	-3.559	.001	-20.606	-5.742
실효환율	-7.524	2.841	-.329	-2.648	.011	-13.228	-1.820
한국 환율	.403	.726	.089	.555	.528	-1.055	1.861
한국 임금	.624	.219	.479	2.855	.006	.185	1.063

<표 14>의 Beta계수 값을 보면 한국의 임금, 피투자국의 실질임금, 피투자국의 실효환율 그리고 한국의 환율의 순으로 對 중남미 투자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명변수를 파악할 수 있다.¹⁰⁾

10) 회귀계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회귀계수간 단위가 다를 수 있고 회귀계수의 척도가 해당변수의 산포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반응변수와 모든 설명변수는 사전에 표준화(평균 0, 표준편차 1)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회귀식에서의 회귀계수를 베타계수라고 지칭한다.

<표 15> 분석모델의 적합성

Model	R	R Square	Adjusted Square	st.Error of the Estimates
	.614	.377	.328	237.2100

또한 <표 15>에서 결정계수 R의 값이 37.7%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만약 회귀모형에 사용된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고 피투자국의 정치적 안정도와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세계화 역량 정도를 포함시킨다면 더욱더 건실한 모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상술한 수치를 가지고 (식 1)의 회귀모형을 만들 수 있다.

$$Y = 1369.634 - 13.174X - 7.524Z + .403\alpha + .624\beta + \delta \dots \text{(식 1)}$$

Y = 투자액 (단위: US\$),

X = 피투자국의 실질임금

Z = 피투자국의 실질실효환율

α = 한국의 對 달러 환율

β = 한국의 명목임금

δ = 기타 요인¹¹⁾

5) 회귀진단(분석의 검증)¹²⁾

<표 16>의 Durbin-Watson¹³⁾ 값을 보면 0.876을 나타내고 있다. 이

11)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2) 회귀모형을 위시하여 모든 통계모형을 참과 거짓의 둘 중 하나로 분류한다면 모두 거짓이다. 비록 거짓이라고 해도 참에 충분히 가까운 모형은 과학적 유용성을 갖는다. 잔차분석, 영향력의 평가, 다중공선성의 검토 등을 통해서 회귀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별관측이 도출된 규칙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사례 각각을 떼어서 개별화하는 반대 방향의 분석을 회귀진단이라고 일컫는다.

를 추정하면 값이 그다지 크지 않아 오차항의 독립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 16> 오차항의 독립성 통계치

Model	Change Statistics					Durbin-Watson
	R Square Change	F Change	df1	df2	Sig. F Change	
	.377	7.699	4	51	.000	.876

<표 17> 다중공선성¹⁴⁾ 통계치

Model	Correlations			Collinearity Statistics	
	Zero-order	Partial	Part	Tolerance	VIF
constant					
실질임금	-.091	-.446	-.393	.708	1.412
실효환율	-.284	-.348	-.293	.792	1.262
한국환율	.375	.077	.061	.473	2.113
한국임금	.433	.371	.316	.435	2.299

분산팽창인수인 VIF는 허용값(tolerance)의 역수이기 때문에 허용값이 작은 경우(예컨대 0.1이하인 경우) 다시 말하자면 분산팽창인수가 큰 경우(예컨대 10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회귀계수의 추정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7>의 통계

- 13)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이 無自己相關임을 뜻하고 0에 가까우면 인접 오차항이 양적 자기상관 관계에 있음을, 4에 가까우면 음적 자기상관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자기상관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회귀모형에 시차변수를 포함하는 등의 시계열적 분석을 고려해야 한다.
- 14) 多重共線性이란 설명변수 사이의 완벽하거나 거의 완벽한 선형종속의 관계를 말한다. 다중공선성이 있는 경우 적어도 한 개의 설명변수는 다른 설명변수로 나타내어지므로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회귀계수의數值解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측면에서도 어느 특정 변수의 추정오차를 지나치게 부풀리기 때문에 회귀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인지 및 해결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치에서는 VIF의 값이 1.4~2.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6) 분석의 결과 및 한계점

지금까지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투자를 할 때 경제적 요인(투자국과 피투자국의 임금차이와 환율차이)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의지 및 피투자국의 정치·문화적 환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피투자국의 실질임금·실효환율과 투자액 그리고 한국의 환율과 명목임금과 투자액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기업규모별 투자액과 여러 가지 독립변수(피투자국의 정치상황, 기업의 세계화 역량 등)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좀더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하는 합리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의의는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많지 않았던 對 중남미 직접투자를 연구한 것에 일단 만족하고 앞으로 이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좋은 연구성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7) 對 중남미 직접투자의 障礙 요소

해외직접투자의 애로점으로는 투자업종 제한, 투자이행 의무, 세제, 외환 및 금융, 영업내용 규제, 부동산(취득제한), 노동문제와 기타 투자장벽 등 경제적 문제와 기본적인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1) 경제 문제

중남미 국가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역내국간의 경제협력은 물론이려니와 역외국과의 통상협력 확대 등을 모색해 왔

으며 그에 따른 많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남미 제국은 국제 금융 및 무역 면에서 극심한 불안정에 대처해야 했다.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성장을 위축시키고 재정 및 대외수지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했지만 중남미의 대처는 괜찮은 편이었다. 심각한 인플레이가 항상 문제였지만 1997~1998년 사이에는 10%선을 유지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21세기에는 좀더 나은 경제환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표 18> 중남미 진출 한국 기업의 경제적인 애로사항

(1995.01.01~1996.7월)

분류	북 미	아 시 아	유 럽	중 남 미	중동·아프리카	합 계
노동	1	11	2	4	0	18
부동산	0	1	1	0	0	2
세 제	6	21	8	8	0	43
영업내용	0	1	0	0	0	1
외환금융	0	3	3	1	0	7
이행의무	0	1	3	1	2	7
기 타	1	18	14	3	2	38
합 계	8	56	31	17	4	116

자료: KOTRA 홈페이지(1999)

<표 18>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제적인 애로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세제와 노동 부문에서의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남미 각국마다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자존심이 강한 중남미 노동자와의 노사관계 또한 다양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2) 정치 문제

중남미 각국이 정치일정에 따라 치러진 대선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

를 이룩함으로써 1990년 이후 민선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민주화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국가에 남아 있는 군부의 압력과 현실과는 괴리된 정치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직접투자 시 이러한 정치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바뀔 때 국가 수용, 몰수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려면 철저한 국제 협정 하에 진입해야 한다.

(3) 사회 문제

중남미 각국은 역내 마약거래, 국제조직 범죄와 연계한 돈세탁 및 불법무기거래 등 치안불안 요인을 근절하기 위하여 역내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는 아열대에 속해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문화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경제·정치적 난관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다.

(4) 노사분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제·정치·문화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국가에 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혹은 중남미 상황에 무지한 나머지 현지 근로자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현지의 사정을 악용하여 그 곳 경제와 근로자에게 많은 고통을 남겨주는 사례도 있다.

<부록 1>은 1995~1996년 사이에 중남미에서 일어난 노사분규를 나타내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되 다만 정당한 노동쟁의와 그에 대한 社主의 적법한 대응은 필요하다. 개별 업체는 혼자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국과 현지국의 국가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명실상부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5. 결 론

1) 연구의 요약

1990년대 중남미 국가가 보여준 경제활동의 확대와 심화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그러한 변화는 개방과 시장경제 확대라는 개혁정책의 기초 위에서 국민의 열렬한 성원을 받음으로써 실현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과 무역확대 및 무역구조의 변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의 對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남미 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과 여러 가지 정치·경제·문화의 논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현재 중남미 국가는 규모의 경제를 성취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안정되고 잠재수요가 무궁무진한 중남미 광역시장을 무대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남미 각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오늘날 중남미 각국가의 경제목표이다. 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對 중남미 수출위주의 과거 정책보다는 무역장벽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직접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전략 거점을 확보하는 투자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절대절명의 길이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원화의 가치하락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위축시켰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對 중남미 지역으로의 꾸준한 투자를 도모해야 한다. 과거 1970~1980년대 중남미 붐이 붙었을 때 한국의 기업은 중남미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자 일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낙후된 것에 반하여 일본 기업은 꾸준한 투자를 행하면서 중남미 국가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심어 오고 있다. 비록 한국은 그 동안 전

자 및 자동차 산업을 위시하여 많은 분야에서 對 중남미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현지의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진정한 상호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우호국'으로서의 인식을 심는데는 대체로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중남미 지역은 과거 유럽국가의 식민통치가 5백년간 계속됨으로써 오늘날에도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어우러져 경제기반이 형성된 곳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한국 특유의 밀어붙이기 식 단독투자는 장기적으로 환영받을 수 없다. 고로 꾸준한 기업 차원의 협력과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97년~1998년 동남아를 휩쓴 금융위기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세계 기업의 진출 유혹을 저지시키면서 세계 산업자본의 중남미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한국 경제에 있어 동남아시아 시장의 대체시장으로서의 중남미시장의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항상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의 가치를 상호 대체적인 관계에서 관망하면서 이를 위한 시점의 변화가 절실하다.

2)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

많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꾀하였으나 중남미 직접투자에 대한 통계치가 많지 않아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보니 의도했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직관적이면서도 단편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고로 앞으로 산업별·기업규모별 등 다각도의 통계분석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對 중남미 직접투자 현황을 이 연구에서처럼 국가별,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논문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한다면 자료의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 중남미 지역에의 본격적인 진출을 조망한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98년도 중남미 정치·경제 리포트』, 서울, 1999.
- 김원호·김수용·윤미경·이경희,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정책연구』, 제 97-12호.
- 김인준, 『국제경제론』, 1995.
- 김홍규, 『사회과학통계분석』, 1997.
- 남중현, 『국제무역론』, 1994.
- 설영기, 『다국적기업론』, 1988.
- 안세영, 『다국적기업 경제학』, 1997.
- 이재유 외 2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22권, 1992.
- 한국신용평가(주),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 효과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분석”, 1987.
- 허명희,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적 방법』, 자유 아카데미, 1999.
- Brewer, T. L.(1993), “Government Policies, Market Imperfec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IBS*.
- Dunning, J. H.(1990), “The Globalization of Firms and the Competitiveness of Countries”, Sweden: Lund University.
- Froot, K. A. & Jeremy C. Stein(1991), “Exchange r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Imperfect Capital Markets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Hood, N. and S. Young(1979),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gman, London.
- UN(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 대한무역진흥공사 홈페이지.
- 대한민국 통계청 페이지.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 한국은행 홈페이지.
- 96년도 대한민국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
- 98년도 대한민국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

<부록 1> 1995년~1996년에 발생한 중남미 직접투자기업의 현지 노사
분규 유형

순번	유 형 별	진 출 국	진출업체 (발생일)	분규의 사유 및 해결내역
1	임금체불	과테말라	동일 S.A (1995.3.1)	사업주는 공장시설물을 철거하고 종업원 임금 퇴직금 및 임차료 등 13.6만 불을 체불한 채 잠적 - 종업원들은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농성 - 공관에서는 한인회 및 한인봉제협회의뢰와 협조, 임의 탈취해간 공장시설물을 회수, 동 처분 대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 청산
2		온두라스	협성 S.A Honduras (1995.2.15)	부실 경영 및 임원 도피로 폐업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요구 - 거래 은행 중심으로 잔여 자산 처분, 관련 자 일정 비율로 정산 완료
3		엘 살바도르	가보 (1995.9.4)	주문물량 감소와 극심한 자금난으로 도산 위 기에 처한 가보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을 요구하는 농성 전개 - 본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파견하여 해결
4		과테말라	R.C.A (1995.3.12)	회사의 폐업으로 종업원 78명의 8-12월분 임 금 지급을 요구하며, 복미 인군 및 종교단체 에서 한국 공관을 통하여 임금해결에 협력도 록 압력을 가해옴 - 95.7.5 모든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보상 금 전액을 청산하고 종결
5		과테말라	UNICASA (1995.6.12)	사업주가 공장시설물을 은밀히 반출, 매각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종업원 100여명이 체불임 금을 요구하며 농성 - 공장시설물을 매각하여 체불임금 청산
6	근로자 체별 및 감독관 무례행위	과테말라	VETEL (1995.6.30)	사업주가 공장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한 후 퇴 직금 및 임금, 공장임차료 등을 체불한 채 미 국으로 도주 - 지역 노동성 및 한인회 등과 협조, 처분할 시설물을 추적 조사하여 임금 청산
7		온두라스	GALAXY (1995.6.10)	경비원이 옴주 후 종업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종업원 50명이 난동, 기물을 파괴하 자 회사측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분쟁가담자 140명을 해고하고, 해고자 40명이 복직 및 노 조설립을 요구 - 해고자 복직 및 노조 설립 허용 등 정상화
8		엘 살바도르	J&A (1995.3.20)	엘 살바도르 노조위원장, 업체에 무단침입 노 조허용 요구 농성 - J&A 대표 엘 살바도르 정부에 외국인업체 보호요구 - 同 농성 관련자에게 벌금형 선고

자료: 대한민국 국회(1996)

<부록 2> 한국의 對 중남미 투자액과 각 독립변수의 Data

투자액	실질임금	실효환율	한국환율	한국임금
111.00	106.00	75.00	733.60	690.00
115.00	114.00	69.00	780.80	799.00
165.00	124.00	65.00	802.70	885.00
258.00	129.00	67.00	803.60	1022.00
656.00	111.00	100.00	771.10	1124.00
932.00	99.00	89.00	804.80	1261.00
1360.00	98.00	77.00	951.10	1326.00
12.00	93.00	8.00	733.60	690.00
7.00	97.00	87.00	780.80	799.00
9.00	103.00	92.00	802.70	885.00
16.00	111.00	97.00	803.60	1022.00
18.00	112.00	100.00	771.10	1124.00
19.00	113.00	93.00	804.80	1261.00
45.00	123.00	91.00	951.10	1326.00
44.00	104.00	112.00	733.60	690.00
44.00	109.00	108.00	780.80	799.00
56.00	113.00	110.00	802.70	885.00
82.00	118.00	106.00	803.60	1022.00
259.00	123.00	100.00	771.10	1124.00
112.00	128.00	96.00	804.80	1261.00
141.00	131.00	90.00	951.10	1326.00
18.00	104.00	96.00	733.60	690.00
17.00	103.00	102.00	780.80	799.00
16.00	104.00	106.00	802.70	885.00
17.00	106.00	100.00	803.60	1022.00
17.00	114.00	100.00	771.10	1124.00
17.00	117.00	95.00	804.80	1261.00
17.00	117.00	94.00	951.10	1326.00
22.00	85.00	108.00	733.60	690.00
22.00	83.00	116.00	780.80	799.00
22.00	91.00	112.00	802.70	885.00
6.00	92.00	113.00	803.60	1022.00
198.00	95.00	100.00	771.10	1124.00
699.00	103.00	94.00	804.80	1261.00
1170.00	106.00	93.00	951.10	1326.00
27.00	97.00	135.00	733.60	690.00

29.00	98.00	119.00	780.80	799.00
29.00	103.00	114.00	802.70	885.00
41.00	104.00	100.00	803.60	1022.00
36.00	105.00	100.00	771.10	1124.00
63.00	107.00	93.00	804.80	1261.00
64.00	110.00	87.00	951.10	1326.00
132.00	95.00	108.00	733.60	690.00
119.00	99.00	103.00	780.80	799.00
96.00	109.00	103.00	802.70	885.00
93.00	113.00	103.00	803.60	1022.00
112.00	111.00	100.00	771.10	1124.00
137.00	109.00	99.00	804.80	1261.00
145.00	110.00	101.00	951.10	1326.00
114.00	101.00	116.00	733.60	690.00
215.00	102.00	103.00	780.80	799.00
362.00	101.00	94.00	802.70	885.00
402.00	102.00	93.00	803.60	1022.00
460.00	100.00	100.00	771.10	1124.00
536.00	100.00	101.00	804.80	1261.00
565.00	100.00	99.00	951.10	1326.00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Strategy for the FDI
to Latin America**

Noh Hyung-nam & Byun Jae-hak

Nowadays a number of the Latin-american countries are hoping to hos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beyond trade barriers onto their regions, and simultaneously looking forward to unifying economically their countries. So Korea should prepare an adequate strategic planning against such a change in her trade environment before too late. Korean corporations should broaden her production base in the Latin-american countr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isually and to survey contemporary trends of Korean FDI in the Latin-american countries with a statistical method(SPSS) as well as broad and vivid stories of Korean corporations. Especially in this study we try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economic factors, namely, wage, exchange rate, market price, etc.